

# 반도체 초격차 복원 초읽기... '배테랑 리더십' 승부수 던졌다

**삼성, 7명 사장단 위촉·업무재편**  
경쟁력 회복 위한 DS 부문 재정비  
경영 전략 재정립, 미래 먹거리 발굴  
해외 마케팅·온라인 비즈니스 강화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앞둔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DS(반도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한다.

지난 5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구원투수로 영입한 전영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내정, 주력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전영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문에 이례적으로 사장 2명을 배치하고,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메모리사업부를 맡은 것이 눈에 띈다. 김용관 사장을 승진시켜 DS 부문 반도체 경영전략담당으로 앉힌 것도 의미심장한 인사라는 평이다. 27일 삼성전자는 2025년 정기인사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를 전영현 부회장이 직할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영현 부회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메모리 사업부를 이끌게 됐다.

삼성전자는 전 부회장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DS 부문 핵심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장과 삼성종합기술원(SAIT) 원장까지 맡겼다.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한 데는 전 부회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조직 분위기를 견

## 2025년 삼성전자 신규 및 업무변경 사장단

**DX부문**

- DX부문 및 DA사업부, 품질혁신위원장: **한종희** 대표 부회장
- 글로벌 마케팅실: **이원진** 사장
- 브랜드전략위원: **이영희** 사장

**DS부문**

- DS부문 및 메모리사업부·SAIT원장: **전영현** 대표 부회장
- 파운드리사업부: **한진만** 사장
-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최고기술책임자(CTO): **남석우** 사장
- DS부문 경영전략담당: **김용관** 사장

**사업지원TF 담당 사장**: **박학규** 사장

**미래사업기획단**: **고한승** 미래사업기획단장 사장

자료: 삼성전자 /뉴스스 그래픽

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령탑을 교체하고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보직을 신설했다.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한진만 미주총괄 부사장이 발탁됐다. 한 사장은 D램·플래시 설계팀을 거쳐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말 미주총괄로 부임해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CTO 사장에는 남석우 DS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배치했다. 남 사장은 반도체 공정개발 및 제조 전문가로 반도체연구소에서 메모리/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DS부문 제조&기술담당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공정 기술 확보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12년 만에 김용관 사업지원TF 부사장을 반도체 담당으로 불러들여 DS 부문 신설 보직인 경영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김 사장은 지난 2012년 DS부문 경영지원실 기획 팀장직을 끝으로 반도체 업무를 맡지 않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래전략실에서 임원을 맡았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 기기사업부장 및 삼성메디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12년 만에 반도체 업무에 복귀한 셈이다.

퇴임한 인사인 이원진 상담역도 다시 복귀시켰다. 이원진 상담역은 지난해 이미 일선 서 물러났지만 1년만에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사장은 과거 어도비 코리아 대표, 구글 북미 광고솔루션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이 사장은 마케팅·브랜드·온라인 비즈니스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창립 멤버인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고한승 사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진다. 미래사업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신설 조직이다. 고 사장은 삼성전자로 이동해 경계현 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이 맡았던 미래사업기획단을 이끌게 된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미 삼성전략기획실

신사업팀 담당임원과 삼성전자의 신사업팀 담당 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처럼 DS 부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기존의 배테랑 인사가 앉게 된 배경에는 '인재 부족'도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S 부문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장과 함께 메모리사업부장, SAIT 원장 등을 모두 맡은 것도 이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주일가량 앞당겨 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위기에 빠진 삼성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5일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하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임원 승진 규모는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jia\_tea@metroseoul.co.kr

## 연말 인사 앞당기고, 조직 슬림화... 글로벌 위기 대응 전략

**국내 기업, 불확실성 돌파구**  
현대차그룹, 첫 외국인 CEO 선임  
LG, R&D 역량 강화·젊은 인재 발탁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말 임원인사를 앞당기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0시대 무역전쟁까지 예고되면서 경영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SK 그룹 등은 과거 연말에 진행했던 임원 인사를 앞당겨 내년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올 연말 대기업 인사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장 승진 2명, 위촉업무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보통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를 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인사를 실

시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5일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도 그동안 연말 발표했던 임원인사를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긴 11월 15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처럼 인사를 앞당긴 건 글로벌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올해 인사에서 차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을 CEO로 선임하기도 했다. 바로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입지적인 인물인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 여기에 트럼프 2.0대응을 위해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현대차 고문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LG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중속 내실 다지기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 임원 21명을 포함한 그룹 R&D 임원은 21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여성 임원과 80년대생 임원도 크게 늘었다. 신규 임원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파악됐다. 이는 '도전적 목표'를 세워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한 구광모(썬) LG 대표의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코플랜트 등 SK 일부 계열사는 예년보다 두 달 이른 10월에 인사를 마쳤다. SK그룹은 12월 초 임원 인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리밸런싱(조직 개편)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돌입한 만큼 연말 인사에서 파격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다만 지난해 219개의 계열사를 연말까지 10% 이상 줄이는 등 고강도 조직개편에 돌입한 만큼 임원 수는 20% 가량 감축할 가능성이 크다. /양성운 기자 ysw@

## 반도체 재도약... 정부, 14조 금융지원·세액공제 대폭 확대

'반도체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첨단 기술 육성·클러스터 활성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 내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부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관

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중국의 추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관, 동박적층판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한다.

또 소부장·패시브·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

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